

禱千手觀音歌의 새로운 解讀

南 豐 鉉

(檀國大 名譽教授)

要約 및 抄錄

이 향가는 新羅 景德王 때에 盲人이 된 5세의 어린이가 그 어미 希明과 함께 芬皇寺의 壁畫인 觀音像 앞에서 이 노래를 지어 빌어서 得明을 하였다고 하는 노래이다. 이는 10구체의 향가의 전형을 보여 주며 그 표기법이나 문법으로 보아 8세기의 노래로 추정된다. 이 노래의 表記法은 釋讀口訣의 表記法과 表裏의 관계를 가져 ‘讀字+假字’의 구성으로 이루어졌고 古代韓國語의 문법을 잘 반영하고 있다. 필자는 새로 발굴된 釋讀口訣과 吏讀 資料를 근거로 연구된 고대한국어의 표기법과 문법을 바탕으로 과거에 잘못 해독되었던 것들을 수정하면서 이 향가를 전면적으로 새로 해독을 하고자 하였다.

※核心語: 5歲兒 得明, 芬皇寺 觀音像, 鄉歌形式의 典型, 表記法, 古代語

1. 序言

鄉歌는 많은 이들이 해독을 시도하여 왔다. 그러나 그 해독은 중세국어틀 기반으로 하거나 중세국어에 없는 표현들은 臆測으로 추측한 것이었다. 일찍이 李崇寧 선생님은 향가의 해독은 고대국어가 재구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고 하고 一字一音의 原則을 강력하게 주장하였다. 古代韓國語의 再構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고대한국어의 자료를 발굴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이 부족하였던 것은 한국어학의 연구가 깊지 못하였던 데에 말미암은 것이라고 하겠다. 一字一音의 原則도 좀 더 구체적으로 밝혀야 할 사항

이 많다.

1970년대 이후 고대한국어의 자료는 괄목할 만큼 새로이 발굴되었다고 할 수 있다. 삼국시대의 이두자료에서부터 신라·고려 시대의 이두자료까지 소화하기 어려울 만큼 많은 자료가 발굴되었다. 또 12세기에서부터 13세기에 걸쳐서 이루어진 字吐釋讀口訣 자료가 5종이나 발굴되었고 최근에도 13세기 후반의 자료로 보이는 자료가 새로 발굴되기도 하였다. 앞으로도 이 방면의 자료가 새로 발굴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點吐釋讀口訣도 20여종이나 발굴되어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 釋讀口訣은 비록 고려시대에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향찰의 표기법과 신라시대의 언어 현상을 保持하고 있는 자료이다. 鄉札은 이 한문을 우리말로 해석한 석독구결을 그대로 응용한 것이다. 석독구결이 經典을 읽기 위한 기록이라면 향찰은 석독구결의 표기를 우리말의 표기로 바꾸어 놓은 것에 다름이 아니다.

借字表記法은 한자를 차용하여 우리말을 기록하는 표기법이다. 차자는 漢字를 音讀하느냐, 訓讀하느냐에 따라 音과 訓의 독법으로 갈리고 그것을 표의자 그대로 사용할 것인가 表意性은 버리고 表音性만을 사용할 것인가에 따라 ‘讀(표의성)’과 ‘假(표음성)’의 용법이 갈린다. 이에 따라 音讀字와 訓讀字의 讀字(표의문자)와 音假字와 訓假字의 假字(표음문자)로 구별되어 사용되는 것이다. 一字一音의 原理란 차자를 이 4가지 用字法의 원리에 따라 구별한 다음에야 성립하는 원리인 것이다(南豐鉉1981).

향찰은 ‘讀字(표의자) + 假字(표음자)’의 연결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석독구결의 표기구조에서 온 것이다. 석독구결은 漢文의 構成素에 우리말의 ㅌ를 달아 우리말의 어순으로 바꾸어 읽는 것이다. 이 때 漢文의 構成素는 讀字(표의자)이고 ㅌ는 우리말의 조사나 어미와 같은 문법형태들을 표기하는 것이니 이는 假字(표음자)가 되는 것이다. 즉 석독구결을 우리말로 풀어 읽은 어순과 향찰의 어순은 ‘讀字 + 假字’라는 점에서 일치하는 것이다. 향가를 해독할 때는 이 표기구조를 찾아내려는 노력이 먼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제까지의 향가해독은 이 구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였다. 이 밖에도 차자표기에서는 동명사어미 ‘-隱/(으)ㄴ’과 ‘-尸/ㄷ’이나 어말어미들의 표기가 생략되는 경우가 흔히 있으므로 이를 재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

어야 한다.

현재 발굴된 석독구결 자료는 고려시대에 이루어진 것이지만 향가의 언어를 거의 保持하고 있어 향가의 문법과 일치하고 있음이 많음을 볼 수 있다. 석독구결의 언어는 15세기의 언어와는 큰 차이를 보여 주는데 특히 문법적인 차이가 크다. 이제까지의 해독에서는 이러한 차이를 거의 인식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바른 해독을 할 수가 없었다. 필자는 如實法의 ‘支/디’, 合當法(謙讓法)의 ‘內/아’, 동명사어미 ‘尸/어’와 ‘隱/(으)니’, 動詞文 否定의 ‘不冬/안들’과 명사문 부정의 ‘不知(不諭)/안디’의 구별 등 중세어에는 없는 문법에 대하여 밝힌 바가 있다. 이러한 문법의 해명은 鄉歌를 해독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또 향가의 표기는 한 글자도 헛되게 쓴 것이 없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약간의 誤字가 있기는 하지만 거의 모든 차자가 정확하게 사용되었음을 볼 수 있다.

禱千手觀音歌라는 이름은 梁柱東 선생에 의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이밖에도 여러 이름으로 불렸는데 盲兒得眼歌(小倉進平), 관음가(홍기문), 禱千手大悲歌 등이 해독자에 따라 달리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觀音菩薩의 畫像 앞에서 눈을 뜨게 해 달라고 비는 내용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는 제목은 양주동 선생의 명칭이 잘 반영하고 있다 하겠다.

2. 禱千手觀音歌의 背景說話와 그 註音

『三國遺事』의 卷第3, 塔像 第4에 ‘芬皇寺 千手大悲 盲兒得眼’ 조에 禱千手觀音歌의 背景說話와 歌詞가 실려 있다. 그 원문을 적고 해석과 설명을 한 다음 향가의 원문과 그 註音を 표시하여 보이기로 한다.

芬皇寺 千手大悲 盲兒得眼

景德王代 漢歧里女 希明之兒 生五稔而忽盲. 一日其母抱兒 詣芬皇寺左殿北壁畫千手大悲前. 令兒作歌禱之. 遂得明. 其詞曰 <鄉歌本文 省略>

讚曰 竹馬葱笙戲陌塵 一朝雙碧失瞳人 不因大士廻慈眼 虛度楊花幾社春

해석;

분황사 천수대비. 盲兒가 눈을 얻다.

景德王 때 漢歧里의 여인 希明의 아이가 태어나서 5년에 갑자기 눈이 멀었다. 하루는 그 어머니가 아이를 안고 芬皇寺의 左殿 北壁의 그림인 千手大悲 前에 나가 아이로 하여금 노래를 지어 빌게 하니, 드디어 밝음을 얻었다. 그 노래는 다음과 같다(본문 생략).

讚한다. 죽마 타고 파피리 불며 저자거리에서 놀더니
하루아침에 두 눈동자를 잃은 사람.
관음의 자비로우신 눈길이 아니면
머들가지 날리는 봄날을 얼마나 헛되이 보낼 것인가?

이 설화는 8세기 중엽인 경덕왕(742-764) 때에 이 노래가 지어졌음을 말하고 있다. 이 당시에 5 세 아이가 이러한 향가를 지었다는 것은 믿기 어렵지만 서민들 사이에서 이러한 鄉歌가 유행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믿을 만한 것이다. 그 어머니의 이름이 밝음을 희망한다는 뜻인 ‘希明’이란 점을 고려하면 그 어머니가 이 노래를 지어 아이가 부르도록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노래가 어떤 과정을 거쳐 『三國遺事』에 실리게 되었는지는 밝힐 수 없지만 芬皇寺의 觀音壁畫가 신라의 유명한 畫工인 率居의 神畫임을 고려하면 그 신통성에 대한 설화는 이밖에도 더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黃湏江 2001: 507 이하).¹⁾ 이러한 사실들은 이 표기가 통일신라시대의 鄉札이라는 사실임을 믿게 하는 것이다. 그것은 여실법 조동사 ‘支/디’와 합당법 조동사 ‘內/야’의 쓰임이 살아 있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 이는 해독하여 가면서 논의하겠지만 釋一然이 『삼국유사』를 편찬한 12세기말의 언어보다는 훨씬 古形을 보여 주는 것이다. 이는 處容歌와 薯童謠가 고려시대의 언어를 반영하고 있는 점과는 다른 것이다.

도천수관음가는 『三國遺事』에 10句를 句節 단위로 끊어 제시하였다. 간혹 字間에 빈 칸이 있지만 이는 쉽게 추정하여 메울 수 있는 것이다. 이 노

1) 率居 新羅人, 所出薇 故不記其族系…… 又慶州芬皇寺觀音菩薩 晉州斷俗寺維摩像 皆其筆蹟 世傳爲神畫.

래를 句와 語節 단위로 나눈 다음 우선 필자 나름으로 읽은 註音을 붙이어 제시하도록 한다.

- 제1구: 膝盼 古召旆 / 무릎을 고조며
 제2구: 二尸 掌音 毛乎支 內良 / 두블 솟벼림 몬오디 아아
 제3구: 千手 觀音叱 前良中 / 千手 觀音스 前아귀
 제4구: 祈以支 白屋尸 置內乎多 / 비로디 솟을 두아오다
 제5구: 千隱 手(良)叱 千隱 目盼 / 즘든 손(아)스 즘든 눈을
 제6구: 一等下叱 放 一等盼 除惡支 / 헛든하트 놓, 헛든을 덜아디
 제7구: 二 于萬隱 吾羅 / 두블 우만 나이라
 제8구: 一等沙隱 賜以古 只內乎叱等邪 / 헛든산 주시고 기아웃드야
 제9구: 阿邪也/아야야
 吾良 遺知支 賜尸 等焉 / 나아 기다디 주싯 든
 제10구: 放冬矣 用屋尸 慈悲也 根古 / 어드의 뷔움 慈悲야 큰고

이는 전 4구와 후 4구 그리고 결구 2구로 구성된 향가의 전형적인 양식을 보여 준다. 제1구와 제7구는 2, 3 語節이고 나머지 구는 4 語節로 되어 있음도 다른 향가의 형식과 일치한다.

3. 解讀

鄉札은 어절을 단위로 할 때 ‘讀字 + 假字’의 구조로 되어 있음은 앞에서 말하였다. 이 노래도 그러한 표기 구조를 보여 준다. 다만 제1구의 ‘古召旆/고조며’, 제2구의 ‘毛乎支/몬오디’, 제7구의 ‘于萬隱/우만’과 제9구의 歎辭인 ‘阿邪也/아야야’가 音假字만으로 표기되어 있다. 이는 석독구결에도 全訓讀 表記로 나타나는 것이 있어서 향찰만의 특징은 아니다.

讀字 부분은 음독자와 훈독자로 갈리는데 이들은 모두 중세어의 한자음과 어형을 근거로 추정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 의미는 알 수 있는 것이어

서 중세어로 옮겨 놓아도 뜻은 알 수 있는 것이다. 간혹 고대어로 추정할 수 있는 어형도 있으나 이는 드문 일이다. 音假字와 訓假字 역시 중세어를 근거로 추정하게 되는데 이는 釋讀口訣의 吐와 통하는 것이어서 고대어의 음이나 어형으로 볼 수 있다.

앞에 제시한 원문을 구를 단위로 가져다가 이를 語節 단위로 띄어서 註音을 붙이고 그에 대한 근거를 제시한 다음 그 뜻을 해석하여 나가기로 한다.

제1구; 膝盼 古召旆 / 무릎을 고조며

이 구는 이 노래의 첫 구로 그 전형적인 양식인 2 語節 6 音節로 이루어져 있다.

‘膝’에 대응하는 중세어는 ‘무릎’이다. 南廣祐編著의 『古語辭典』(1997)에는 ‘무릎피며 바리며(월석9,36b), ‘원넉 밧등을 올흔넉 무릎페 엇고(법화 1,55)’ 등이 올라 있다.

‘盼’은 신라향가에서 대격조사의 표기에 사용되고 간혹 ‘ㄹ’말음표기에도 사용되었다. 이 노래에서도 제6구의 ‘目盼/눈을’과 제7구의 ‘一等盼/헛든을’에서 대격조사의 표기에 사용되었다. 普賢十願歌에선 稱讚如來歌에 ‘德海盼/덕바들’에서 ‘ㄹ’말음을 첨기하는 데 1번 사용되었고 그 밖의 ‘ㄹ’음은 모두 ‘乙’자를 사용하여 신라 향가와 차이를 보여 준다. 신라향가로 분류되지만 고려시대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되는 處容歌와 薯童謠의 대격조사도 ‘乙/ㄹ’로 표기되었다. 처용가에선 ‘二盼隱/두블은’에서 ‘ㄹ’음표기에 ‘盼’이 사용되었다. 이로 볼 때 ‘盼’은 신라향가에서 대격을 표기하기 위하여 사용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盼’이 나타내는音を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고 이 형태가 중세어의 ‘(으/으)ㄹ’ 음, 특히 대격조사에 해당하는 형태를 표기함만이 확인된다. 신라향가에선 처격조사에도 어두에 ‘ㅎ’음을 가진 형태인 ‘쉴/희’를 볼 수 있는데 이러한 ‘ㅎ’음의 성격이 무엇인지는 앞으로의 과제로 남겨 놓는다.

‘古召旆’는 양주동 이후 여러 해독자들이 ‘고조며’의 표기로 보았다. 이는 한 어절을 음가자만으로 표기한 것으로 본 것이다. 북한학자들은 이를 ‘구브리며’, ‘고부리며’, ‘그부르미’로 읽었는데 이는 古를 음가자로 읽어서 ‘고’로

읽고, 召를 훈가자로 보아 ‘부르’로 읽은 것이다. 음가자나 훈가자는 1 음절로 읽는 것이 원칙인데 2 음절로 읽은 것도 구차하지만 ‘召’자를 훈가자로 사용하고 그것이 음가자 뒤에 사용된 것은 이제까지 발견되지 않는 표기법이어서 수용하기가 어렵다.

‘古召旃/고조며’는 ‘곳 + 오 + 며’로 분석되는데 이는 동사 ‘곳-’에 의도법 보조어간 ‘오’와 연결어미 ‘며’가 연결된 것으로 분석된다. 동사 ‘곳-’은 『古語辭典』에 ‘꽃다’의 뜻으로 풀이하고 ‘빈혀 고조며(선사내훈), 본 고쟁는 架子(두언7,31)’ 등의 예문을 들고 있다. 의도법보조어간 ‘오’는 그 기능에 대한 해석이 구구하지만 ‘하나의 행동’이 화자에게 심리적으로 가까움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상으로 이 제1구는 ‘무릎을 (바닥에, 간절한 마음으로) 꽃으며’로 해석할 수 있다.

제2구: 二尸 掌音 毛乎支 內良 / 두불 솟벼름 몬오디 아아

이 句는 여실법조동사 ‘支(支)/디’와 합당법 조동사 ‘內/아’의 용법을 이해하지 못하여 해독을 못하였다. ‘二尸 掌音’이 제1구의 ‘膝/무릎’과 같이 신체의 일부라는 점에 근거하여 구절의 대강 뜻은 짐작하였었지만 고대어의 문법을 알고 명확한 해독을 하는 데는 이르지 못하였다.

‘二尸/두불’은 鷄林類事의 ‘二曰途孛’에 근거하여 ‘두불’로 추정할 수 있다(姜信沆1980: 36). 이는 ‘두불>두불>두울>둘’의 과정을 거쳐 중세어의 ‘둘(ㅎ)’로 발달한 것이다. ‘尸/ㅍ’은 석독구결에서 동명사어미로 쓰였는데 이 어미가 중세어에서는 ‘ㄹ’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尸’의 고대음에는 폐쇄성이 있어 ‘ㅍ’음으로 추정하고 있다.

참고: 通達티 아놉 아니로소니: 非不達 <杜詩19,16b>

일로 流布호티 다울 업시 호리라 하니: 以此流布 無窮 <楞嚴1,4b>

‘掌音’은 金完鎭(1980)에서 ‘솟벼름’으로 읽었다. 掌자의 훈은 ‘손바닥(훈몽자회)’과 ‘손바닥(類合)’이 알려져 있고 ‘손사벽 타-(譯語類解)’가 근대어

의 자료에 나타난다. ‘숯벼름’은 ‘손벽’의 ‘벽’을 ‘壁’의 뜻으로 보고 중세어의 ‘벼름’으로 재구한 것이다. 발음이 ‘音’인 ‘掌音’은 ‘숯벼름’으로 해독하는 것 이상의 방안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毛乎支’는 문맥으로 보아 ‘모도디’로 읽는다. ‘毛’와 ‘乎’ 사이에 ‘ㄷ’음의 표기가 생략된 것으로 보는 것이다. 이는 ‘몬+오+디’로 분석된다. 석독구결에서 자주 쓰이는 ‘諸₇/모든’이 동사 ‘몬-’의 존재를 확인시켜 준다. ‘西夷’또 ‘모드니:西夷亦集(용가9)’의 용례도 중세어 ‘몬-’의 어형을 보여 준다. ‘乎/오’는 의도법 보조어간으로 여기서는 ‘모으는’ 행동이 직접적으로 자기와 가까움을 나타내는 것이다. ‘支’자는 삼국유사에서는 ‘支’자와 자주 혼용되던 차자로 서로 이체자의 관계이다. 석독구결의 ‘ㅈ’로 보아 ‘支’가 정자임을 알 수 있다. ‘支/디’는 ‘뚝 같다’의 뜻을 나타내는 여실법의 조동사로 ‘毛乎/몬오-’의 행동이 틀림없음을 강조하는 기능으로 쓰였다. 이에 따라 ‘毛乎支/몬오디’는 ‘꼭꼭 모아’ 또는 ‘모으고 또 모아’와 같은 강세의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支/디’는 조동사이면서 동사의 어간이나 어미에 직접 연결되고 뒤에 어미를 수반하지 않고도 사용된다. 이는 고대어에서는 동사 어간의 독립성이 강하여 어간과 어간의 연결이 복합어를 형성하는 어휘론의 범주가 아닌 통사론의 범주에서 사용되는 문법을 보여 주는 것이다. 이 ‘支/디’가 뒤에 오는 어절과의 관계는 부사어도 될 수 있고 관형어도 될 수 있는데 여기서는 부사어가 된다.

‘內良’의 ‘內’는 이제까지 음독하여 ‘니’로 읽어 왔다. ‘內’자가 음독되는 경우가 없지 않지만 신라시대의 이두에서는 오히려 검양법의 조동사로 널리 쓰인 것이다(南豐鉉 2011). ‘內’자는 삼국시대의 신라지명에서 ‘안’으로 읽히었음도 확인된다. 즉 『三國史記』 권34의 居昌郡 조에 ‘餘善縣本南內縣景德王改名’이라 있다. 이는 南內縣을 景德王이 餘善縣으로 바꾼 것인데 ‘南/남’을 ‘餘’로, ‘內/안’을 ‘善’으로 대응시킨 것이다. 이는 경덕왕 이전에 ‘內’를 ‘안’으로 읽고 ‘善(착하다, 어질다)’의 뜻으로 사용하는 표기들이 있었음을 말하여 주는 것이다. 신라시대 이두에서 ‘內/아’의 용례는 매우 많지만 대표적인 것을 들면 다음과 같다.

乙未年 二月 十四日 一部 周了 成內之 成內 願旨者 皇龍寺 緣起法師 爲內 賜……(新羅華嚴經寫經造成記, 755) (을미년 2월 14일 일부를 두루 다 이루었다. 이룬 원지는 황룡사 연기법사가 삼으시니……)

여기서 ‘成內之/일리아다(이루었다)’, ‘成內/일안(이룬)’, ‘爲內賜/삼아사’의 ‘內/아’는 현대어로는 해석하기가 어렵지만 ‘華嚴經’에 대하여 겸양을 나타내는 것이다. 여기서 ‘內/아’의 본래의 의미는 ‘어질다, 착하다’이지만 이는 타인이 칭찬하는 것이고 본인의 입장에서는 ‘남에게 관한 일을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태도를 말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존자나 존자에 관계된 사물에 대하여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동사에서 ‘內/아’가 겸양을 나타내는 조동사로 발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겸양의 조동사 ‘內/아’는 고려시대 전반기까지 사용되다가 8세기말에 새로 겸양의 조동사로 등장한 ‘白/웁’에 그 기능을 넘겨주고 그 본래의 뜻인 ‘착하다’, ‘합당하다고 생각하다’의 뜻으로 사용된 예가 조선초기의 이두문까지 이어짐을 확인할 수 있다(南豐鉉 2011).

‘內良/아아’의 ‘良’은 광주판 千字文에 그 훈과 음을 ‘알 량’으로 달고 있어 그 古形의 훈이 ‘아’였음을 추정할 수 있다. ‘아’는 곧 ‘어질다’는 뜻이니 합당법의 ‘內/아’의 훈은 본래 이 ‘良’자의 훈에서 온 것이다. 신라시대인 8세기 전반기의 석독구결 자료인 日本奈良市の 東大寺圖書館에 소장된 新羅華嚴經 寫經에서 角筆로 표기된 이 ‘良’자가 ‘아’음의 표기에 널리 쓰였음이 확인된다(南豐鉉 2013). ‘內’자가 주로 합당법 조동사의 표기에 쓰인 것과는 달리 ‘良’자는 연결어미 ‘아’와 호격조사 ‘아’의 표기에 주로 쓰이고 드물지만 ‘생각하다’의 뜻인 동사 ‘아’를 나타내는 데도 쓰였다. 이러한 사실들로 보아 ‘內良’은 ‘아아’로 읽고 ‘합당하다고 생각하여’의 뜻을 나타내는 겸양법의 표현에 쓰인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문맥에서는 ‘공손히’, ‘공손하게 생각하여’ 정도로 해석할 수 있다.

이상으로 이 제2구는 ‘두 손(바닥)을 꼭 모으고 모아, 공손히(공손함을 다 하여)’로 해석된다.

제3구: 千手 觀音叱 前良中 / 千手 觀音入 前아긔

이 구는 한자어에 토가 쓰인 표기이어서 해독이 쉽다. 다만 ‘前良中’의 ‘前’을 훈독할 것인가, 음독할 것인가에서 의견들이 갈리고 있다.

‘千手觀音’은 三國遺事의 설화에서는 ‘千手大悲’라고 하였다. 같은 말이다. ‘觀音’은 ‘觀世音菩薩’의 준 말이다. ‘관세음’이란 ‘중생이 구원을 구하면 곧바로 구제한다는 뜻’이라고 한다. 구원을 구하는 자의 모습에 따라서 大慈悲를 행하기 때문에 千變萬化의 相이 된다고 한다. 이에 따라 觀自在菩薩이라고도 하고 千手千眼觀音이라고도 하는데 티벳과 서역에는 천개의 손바닥에 눈을 하나씩 그린 관음보살의 그림이 있다고 한다(이상 佛敎大辭典). ‘千手觀音叱’의 ‘叱/入’은 속격조사이다.

‘前良中’의 ‘良中’은 ‘아긔’로 읽히는 처격조사이다. 이는 ‘아+그+의’로 분석할 수 있는데 ‘아’는 처격조사, ‘그’는 대명사, ‘의’도 처격조사이다. 따라서 ‘良中/아긔’는 처격이 중복된 표현이다. 중세어에서도 처격의 중복형태는 흔히 볼 수 있다. ‘그어긔’의 ‘어긔’와 ‘의거긔’의 ‘거긔’도 ‘(그)+어+그+의’로 분석되어 두 처격조사가 결합된 형태이다. 良中은 석독구결에서는 ‘3+’로 표기되는데 대체로 漢字語에 연결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따라 ‘前良中’의 ‘前’은 음독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당시에는 ‘千手觀音入 前’이 하나의 숙어로 익어져 ‘前’을 음독한 것이 아닌가 한다. ‘前’이 고유어 ‘앞’으로 훈독되었다면 중세어의 ‘알퓌’로 보아 처격조사 ‘衣/의’가 쓰여야 할 것이다.

이상으로 이 제3구는 ‘千手觀音 前에’로 해석된다.

제4구: 祈以支 白屋尸 置內乎多 / 비로디 숭웅 두아오다

이 구는 해석하기가 어려워 의견이 분분했던 곳이다. ‘支/디’와 ‘內/아’의 기능은 물론, ‘以’의 표음, ‘白/숭’의 기능 파악에서 의견들이 갈리고 있다.

‘祈以支/비로디’의 ‘祈/빌’과 ‘以/로’의 ‘르’는 중복된 것이므로 ‘祈以’를 ‘비로’로 읽는다. 以 자는 ‘로’로 읽히는 구결자로 널리 쓰이고 있으며 동대사 소장의 華嚴經寫經에서도 ‘로’음의 표기에 자주 쓰였음을 볼 수 있다. 향가에서 ‘以’는 ‘이’로 읽히는 예가 많고 ‘로’로 읽히는 예는 드문 편이다. 그

러나 ‘祈以’를 ‘빌이’로 읽으면 ‘이’의 기능을 설명할 수 없다. ‘비로디’를 분석하면 ‘빌+오+디’가 되는데 ‘빌’은 어간, ‘오’는 의도법 보조어간, ‘디’는 여실법 조동사이다. 이 구성은 제2구의 ‘毛乎支/뭇오디’의 구성과 일치한다. 이 구의 해석은 여실법을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중요한데 ‘빌고 또 빌어’, ‘간절히 빌어’ 등 ‘비는 행동’을 강조하여 표현한 것으로 보면 이해하기가 쉽다.

‘白屋尸/숯’에서 ‘屋’자는 향가의 표기에서 ‘乎/오’와 함께 의도법보조어간 ‘오’의 표기에 자주 쓰였다. ‘尸/꺄’은 동명사어미이다. 이에 따라 ‘白屋尸/숯’은 ‘사되움’으로 해석해야 한다. 양주동(1968) 이래 이를 겸양의 보조어간 ‘숯(>습)’으로 해독하는 견해들이 주를 이루어 왔는데 이는 잘못이다. ‘白/숯’이 겸양법 조동사로 쓰인 것은 8세기 후반인 三和寺鐵佛 造像記(860년대)가 현재로서는 가장 이른 것이다(南豐鉉 2011). 그 이전에는 ‘丙/아’가 쓰였음은 앞에서 설명하였다. 이 문맥에서는 동명사로 보아 ‘사되움’으로 해석해야 한다.

‘置丙乎多/두아오다’는 동사 ‘置/두’, 합당법(겸양법)의 조동사 ‘丙/아’, 의도법 보조어간 ‘乎/오’, 평서법 서술어미 ‘多/다’로 분석된다. ‘多/다’는 평서법서술어미이되 ‘斷定’의 뜻이 있어 ‘也/야’와 구별된다.

이상으로 이 구절은 ‘간절히 빌고 비는 사되움을 두옵니다’로 해석된다.

제1구에서부터 이 제4구까지가 한 단락을 이루어 前4句인 前節이 된다.

제5구: 千隱 手(良)叱 千隱 目盼 / 즘른 손(아)스 즘른 눈을

이 구는 原典에 ‘手’자와 ‘叱’자 사이에 공백이 있다. 해독자들이 이 공백을 무의미한 것으로 보아 왔으나 金完鎭에서 ‘良’자의 缺字로 봄으로써 뜻이 통하는 해독을 할 수 있게 되었다.

‘千隱’은 중세어의 ‘즈른’에 해당한다.

‘手 叱’은 ‘良’자의 缺字로 보아 ‘手良叱’으로 보는데, 현대어로는 ‘손에 있는’으로 해석된다. 이는 觀音菩薩의 천 개의 손바닥에 천 개의 눈을 그린 ‘千手千眼’의 관념에 의한 ‘눈’을 나타내는 것이다.

‘千隱 目盼/즈른 눈을’은 ‘盼’이 ‘ㅎ’말음을 첨기한 것으로 해독한 이들이 많다. 향가의 표기에서 ‘盼’은 대격조사 ‘르’음을 표기한 것이므로 ‘(으)르’로

읽어야 한다. 중세어에서 ‘눈(목)’은 ‘ㅎ’말음 명사가 아니므로 ‘盼’을 ‘홀’로 읽어서는 안 된다.

이상으로 이 구를 해석하면 ‘천 개의 손 안에 있는 천 개의 눈을’이 된다.

제6구: 一等下叱 放 一等盼 除惡支 / ㅎ든햇 놓, ㅎ든홀 덜어디

‘一等下叱/ㅎ든햇’은 ‘ㅎ든ㅎ+아+사’으로 분석된다. ‘一等/ㅎ든’은 중세어의 ‘ㅎ나ㅎ’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아 ‘ㅎ’말음을 가진 명사로 보인다. ‘下/하’가 處容歌의 ‘吾下於叱古’, ‘誰支下焉古’의 ‘下’와 같은 의존명사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고대어의 ‘아+사’을 고려하면 ‘一等/ㅎ든ㅎ+앗’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다. ‘아+사’은 怨歌의 ‘之叱/잇’과 일치하는 표현으로 본다. ‘之叱/잇’은 석독구결에 나타나는 형태로 ‘一切’에 연결된 용례만 나타나지만 원가에서는 ‘淵之叱/못잇’에서는 ‘처격조사+속격조사’의 형태로도 쓰였고, ‘都之叱/모도잇’에서는 數量概念語 ‘都/모도’에 붙어 ‘정도’, ‘-만큼’의 의미를 나타내는 보조어간으로 쓰이기도 하였다. 이로 보면 ‘一等下叱/ㅎ든햇’은 ‘하나정도’, ‘하나만큼’의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다.

‘放/놓’은 동사어간이다. 고대어에서는 동사의 자립성이 강하여 동사의 어간형태가 한 어절을 형성하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앞에서 조동사 ‘支/디’의 어간형태가 어미가 없이 뒤의 어절에 연결되는 것을 보았거니와, 중세어의 ‘눈 곧 디니이다(용가50)’의 ‘곧(곧)’도 이와 같은 문법의 잔영을 보여 주는 것이다. 이 어간형태의 어절은 체언을 수식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放/놓’의 경우는 부사어로 쓰여 ‘놓고’, ‘놓아’ 등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문맥상 ‘놓고’로 해석된다.

‘一等盼/ㅎ든홀’은 ‘하나’의 대격형인 ‘하나를’의 뜻이다.

‘除惡支/덜어디’는 ‘덜+아+디’로 분석된다. ‘惡/아’는 ‘거’와 같은 확인법의 보조어간이다. ‘덜어서 주는 일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내용’을 표현한다. 여실법의 조동사 ‘支/디’는 ‘덜어 내는 행위를 틀림없이 할 것’을 강조하는 기능으로 쓰였다. ‘확실히 틀림없이 덜어 가지고’와 같이 강하게 강조하는 내용으로 해석된다.

이상으로 이 구는 ‘하나정도는(만큼은) 놓고, 하나는 꼭 틀림없이 덜어서’

야 한다. 오직 이 같은 卍相만이 있다는 것을)

이와 같이 ‘沙/사’가 체언에 직접 연결되면 ‘-만’의 뜻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一等沙隱’은 ‘하나만은’으로 해석할 수 있다.

‘賜以古 只內乎叱 等邪/주시고 기아웃드야’는 각 형태소의 분포와 기능이 이제까지 알려진 자료로서는 파악하기 어려운 구성이다. 먼저 ‘以/이’자가 ‘賜/주시’의 발음을 첨기한 音假字인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以’자는 앞에서는 훈가자 ‘로’로 쓰인 것으로 해독하였다. 같은 글자가 한 작품 안에서 훈가자로도 쓰이고 음가자로도 쓰인 것이 一字一音의 원리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일 수가 있다. 그러나 假字들의 쓰임에선 이러한 현상이 있을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賜’자의 뒤에 쓰인 것을 보면 이 ‘以’는 ‘이’음으로 ‘賜/주시’의 발음을 첨기한 것으로 보지 않고는 해독이 되지 않는다. ‘古/고’는 확산법 보조어간이다. 이에 이어지는 ‘只’는 ‘수단’을 나타내는 어미 ‘기’으로 볼 수도 있는데 이를 그렇게 읽어 현대어의 ‘하여 가지고’의 뜻을 나타내는 형태로 보아서 이 문맥이 해독되지 않는다.

석독구결에는 ‘ㄹㅏ’의 연결체들이 자주 쓰였는데 문맥에 따라 기능이 다름을 볼 수 있다.

1. 가) 諸기 佛_스 {之} 修行 ㄹ 尸 所乙 聞_ㄹ 有 非_ㄹ 入_ㄹ 乙 了_ㄹ 達_ㄹ ㄹ<화소13,13> (모든 부처의 修行하신 듣고서 有가 아닌 것을 了達하며)
 - 나) 諸기 難乙 遠離_ㄹ ㄹ 無難 得_ㄹ ㄹ ㄹ ㄹ<회엄10:05> (모든 어려움을 遠離하고서 無難을 얻게 하며)
2. 가) {是} ㄹ 念乙 作_ㄹ 已_ㄹ ㄹ 卽 便_ㄹ {之} ㄹ 乙 施_ㄹ ㄹ<화소11:14-15> (이 생각을 이미 하고나서는 곧 이를 보시함에 있어)
 - 나) 勤_ㄹ ㄹ 大_ㄹ 悲_ㄹ 行_ㄹ 乙 修_ㄹ ㄹ 願_ㄹ 入_ㄹ ㄹ 一_ㄹ 切_ㄹ 乙 度_ㄹ ㄹ ㄹ ㄹ 尸 <회엄14:09> (부지런히 大_ㄹ 悲_ㄹ 行_ㄹ 을 닦아 가지고 원하기를 일체를 제도하고자 함에 있어)
 - 다) 大_ㄹ 王_ㄹ 下 當_ㄹ ㄹ 知_ㄹ ㄹ ㄹ ㄹ<화소10:18> (대왕이시여. 반드시 알으십시오)

1ㄱ-ㄴ)의 ‘ㄱ/ㄴ’은 연결어미 ‘ㄱ/고’에 첨사(어미) ‘ㄴ/기’이 연결된 것으로 ‘-고서’로 해석된다. 2ㄱ-ㄴ)은 확신법 보조어간 ‘ㄱ/고’에 조동사 ‘ㄴ/기’가 연결된 예들이고 2ㄷ)의 ‘-ㄱ ㄴ ㅎ/고 기사’는 확신법 보조어간 ‘ㄱ/고’에 존대를 나타내는 조동사 ‘ㄴ ㅎ/기사’가 연결된 예이다. ‘賜以古只’에 쓰인 ‘古只’는 ‘곡’으로 읽어서는 다음에 이어지는 ‘內乎叱/아웃’과 맥락을 지을 수가 없다. 이에 따라 위의 2ㄱ-ㄷ)의 예들은 확신법 보조어간 ‘古/고’와 조동사 ‘只/기’가 연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조동사 ‘只/기’는 중세어에 서는 없어진 동사로 보살, 수도자, 부처님과 같은 이들의 ‘점잖은 행위, 품위 있는 행위를 한다’의 뜻을 나타내는 동사이다. 그 뒤에 이어지는 ‘內/야’를 합당법 조동사로 보아서도 의미를 파악할 수가 없다. 조동사 ‘只/기’는 여기서 존자인 觀音의 품위 있는 행위를 나타내는 동사이므로 그 관음이 겸양을 나타내는 ‘內/야’의 주체가 되어서는 문맥이 통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內/야’는 확인법 보조어간으로 보아야 한다. 이 ‘야’는 석독구결에서는 ‘ㅅ(良)’로 쓰이는데, 많은 용례가 있다. 다만 이 노래에서는 ‘內’자가 쓰여 향가의 표기로서는 예외이지만 오히려 ‘良/야’가 혼독자인 합당법 조동사로 쓰이는 것이 정상이고 ‘內/야’가 음가자로 쓰여 확인법 보조어간으로 쓰이는 것도 정상이라고 할 것이다.

이 ‘內/야’의 뒤에는 ‘乎/오’가 이어지고 있는데 다음에 석독구결에서 ‘ㅅ/야’, ‘ㅈ/오’가 연결된 예들을 보기로 하자.

- 3. ㄱ) 我 ㄱ {於}長夜 ㄴ + ㄷ 其 身 乙 愛 著 ㄴ ㄷ 糸 充 飽 令 ㄴ {欲} 人 而 ㄴ 飲食 受 ㄴ ㄷ ㄴ ㄴ 今 ㄱ {此} ㄴ 食 以 ㄷ 衆 生 ㄴ ㄷ 惠 施 ㄴ ㄴ ㄴ <화소9,17-19>
- ㄴ) 我 ㄱ 無 始 ㄴ ㄴ 已 來 ㄱ 飢 餓 乙 {以} ㄴ ㄴ ㄴ 故 ㄴ 身 喪 ㄷ ㄱ ㄴ 數 ㄴ 無 ㄴ ㄴ ㄴ 曾 ㄴ ㄴ 得 ㄷ 糸 毫 末 許 ㄴ {如} ㄴ ㄴ ㄴ …… 善 利 乙 {有} ㄴ ㄴ 未 ㄴ ㄴ ㄴ ㄴ <화소10,9-11>
- ㄷ) 善 ㄴ {於} 他 破 ㄴ ㄷ 四 諦 乙 說 ㄴ ㄴ ㄴ 外 動 ㄴ ㄷ ㄴ ㄴ 所 ㄷ 非 ㄴ ㄴ 四 諦 說 <화엄20.11>

위의 예에서 보면 ‘ㄹ/아’는 확인법 보조어간, ‘ㅅ/오’는 동명사어미 ‘ㄱ/ (으)ㄴ’과 ‘ㅍ/ㅅ’이 뒤에 이어지는 의도법 보조어간이다.

이 의도법 보조어간에 이어진 ‘ㄷ/사’은 감탄의 보조어간이다. 중세어의 ‘-돏’, ‘-돏’에서 볼 수 있는, 의도법 보조어간 ‘오’에 연결되는 ‘사’과 같은 것이다.

等자는 ‘들’에서 ‘ㄹ’음을 탈락시키고 ‘ㄷ’음의 표기에 쓰인 차자로 앞의 ‘一等/헝든’에서도 보아온 것이다. 고려시대의 이두에서는 여실법 의존명사를 나타내는 차자로 자주 쓰였다. 이 문맥의 ‘等/ㄷ’도 여실법 의존명사로 ‘틀림없음’을 나타내는 강조의 뜻으로 쓰인 것이다.

邪는 향가에서 耶의 이체자로 쓰여 ‘야’음의 표기에 쓰인 것이다. 이는 뒤에 나오는 ‘也/야’와 같은 평서법 서술격 조사이다. 이로서 ‘賜以古只內乎叱 等邪/주시고기아웃ㄷ야’는 ‘주시고+기아웃+ㄷ야’로 3어절에 해당한다. 이를 해석하면 ‘賜以古/주시고’는 ‘확실히 주심을’로 해석할 수 있고 ‘只內/기아’는 ‘관음께서 꼭 그렇게 하시다’로 해석할 수 있다. ‘乎叱 等邪/웃 ㄷ야’는 ‘감탄’과 ‘틀림없음’을 나타내는 ‘ㄷ’와 서술격조사로 마감하는 것이어서 ‘(꼭 주실 것임에) 틀림없도다’로 해석할 수 있다.

이로써 이 제 8구는 ‘하나만은 틀림없이 꼭 주시어야 하도다’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눈 하나는 꼭 주실 것임에 틀림없음’을 강조한 것으로 이 노래의 핵심적인 내용을 나타내고 있다.

제9구: 阿邪也 ㅅㅅ良 遺知支 賜尸 等焉 / 아야야. 나야 기다디 주실 든

이 제9구부터가 結句이다. ‘阿邪也/아야야’는 歎辭이다. 이는 향가에서 ‘阿耶/아야(우적, 광수, 청전)’, ‘阿邪/아야(원왕생)’, ‘阿也/아야(제망매)’로도 쓰였다. 이 탄사는 노래의 격식에서는 별도의 것이어서 특정한 句에 속하지 않으므로 제9구에 속하는 어절은 아니다. 이 탄사의 뒤부터가 말하고자 하는 노래의 내용이다.

‘ㅅㅅ良/나야’의 ‘良/아’는 처격조사이다. 이 문맥에서는 輿格이 되어 ‘나에게’로 해석된다.

‘遺知支/기다디’에서 ‘遺知’의 독음은 ‘간+디’로 ‘ㄷ’음이 말음침기로 중

복되었으므로 ‘김+이’로 읽게 된다. 이는 동사 ‘遺/김’의 사동형이다. ‘支/다’가 여실법 조동사로 ‘遺知/김이’의 행위를 강조한 것이다. ‘틀림없이 꼭 물리어 주다’로 해석할 수 있다.

‘賜尸/주실’은 ‘주시-’의 동명사형이다.

‘等焉/든’은 여실법 의존명사 ‘든’과 주제의 보조사 ‘焉/(으)ㄴ’의 결합이다. 이 시대에는 주제의 보조사의 의미가 분화되지 않았으므로 ‘것은’, ‘-면’, ‘것이지만은’ 등 문맥에 따라 다양한 해석을 검토하여 알맞은 표현을 찾아야 한다.

이로써 제9구는 ‘아아! 나에게 꼭 물리어 주실 바로 그것이언만……’ 정도로 해석된다.

제10구: 放冬矣 用屋尸 慈悲也 根古 / 어드의 ㅅ음 慈悲야 근고

‘放冬矣’의 ‘放’은 ‘於’자의 誤字로 본 견해를 따른다. ‘冬’은 ‘덜’로 읽혀 온 차자인데 차자표기에서 음절말음을 탈락시키고 사용하기도 하여 ‘ㄷ’음의 표기에 쓰인 것이다. ‘矣/의’는 여기서는 처격조사이다. 이에 따라 ‘於冬矣’는 ‘어드의’로 읽을 수 있는데 이는 후대에는 축약되어 ‘어딴’이 된 것이다. 여기에 쓰인 ‘冬矣/ㄷ의’는 후대에 축약되어 ‘딴’이 되는데 이는 ‘矣’자의 훈도 된다. 차자표기에서 ‘矣’자가 ‘딴’로 읽히는 근거는 이 ‘ㄷ의’가 축약되어 쓰이던 것이 굳어진 결과임을 알려 주는 것이기도 하다. 우리는 차자표기에서 ‘矣’자가 ‘딴’로 읽히는 근거가 무엇인가를 찾아 왔는데 이 연결체의 ‘冬矣/ㄷ의’가 그 답을 주는 것이 아닌가 한다. 이런 점에서 ‘冬矣/ㄷ의’는 중고한국어의 어형을 보여 주는 중요한 증거로 생각된다.

‘用屋尸/ㅅ음’의 ‘屋/오’는 의도법보조어간이다. 그 기능은 앞에서 설명한 바 있다.

‘慈悲也/자비야’의 ‘也/야’는 평서법 서술격 조사이다. 석독구결에서는 ‘亦’자의 약체자인 ‘ㄴ, ㄷ/여’가 쓰였는데, 체언이나 동명사에 연결되어 평서법의 서술어, 도치구문의 후행 구의 서술어, 引用文이나 命名文의 서술어 등으로 쓰였다. 이 문맥에서도 체언인 ‘慈悲’에 연결되어 서술격조사로 쓰인 것이다. 현대어로는 ‘-이라고’, ‘-이니’, ‘-인데’ 등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根古/근고’는 ‘根’자를 ‘불휘’로 혼독하는 견해, ‘恨/흔’의 誤字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근고’로 읽고 ‘큰 것인가?’로 해석하는 것이 옳은 것으로 본다. 이는 이 句가 ‘大慈大悲’를 풀어서 ‘慈悲’와 ‘大’로 나누어 표현한 것이니, 이는 反意的 表現으로 祈願의 뜻을 살리고자 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 상으로 제10구를 해석하면 ‘어디에 쓸 慈悲이라고, 크다 할 것인가?’ 정도로 해석할 수 있다.

4. 結 語

이 글에서의 鄉歌 解讀은 鄉札表記法의 원리를 이해하고 古代韓國語의 자료를 발굴하여 연구한 결과를 응용하여 수행한 것이다. 鄉札은 釋讀口訣을 우리말 표기로 바꾸어 놓은 것이다. 석독구결은 한문에다가 우리말의 토를 붙인 것이므로 이를 우리말의 어순으로 배열하여 語節 단위로 살펴보면 ‘讀字+假字’의 구조가 된다. 讀字는 한문의 구성소이고 假字는 우리말의 문법 형태인 ㅏ를 표기한 것이다. 이것이 곧 향찰표기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향찰과 석독구결은 이와 같이 表裏의 관계를 가진 것이므로 향가를 해독할 때는 반드시 이 석독구결을 이해해 두어야 한다. 또 향가를 표기한 모든 글자들은 有意的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임해야 한다. 이른바 虛字라는 것은 없다, 따라서 모든 차자가 어휘론적이든 문법론적이든 의미와 기능을 가진 것으로 보고 해독에 임해야 한다.

禱千手觀音歌는 5세 아이가 ‘作歌’하였다고 하였으나 그 내용은 그 어머니 希明이 아니면 짓기가 어려운 것이다. 여기서 ‘作歌’란 ‘노래하였다’라는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 노래를 지어서 빌었다는 芬皇寺의 觀音像은 신라 제일의 화가로 『三國史記』 列傳에 올라 있는 率居의 작품이다. 따라서 이 관음보살상은 많은 설화를 남기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禱千手觀音歌도 그 중의 하나일 것으로 추측된다.

이 향가의 저작 연대는 『遺事』에 新羅景德王代(742~764)라고 하였다. 흔히 『三國遺事』의 향가는 13세기에 기록된 것이므로 신라시대의 언어를 반

영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추측들을 하기도 하였지만 이 향가는 표기법이나 문법으로 보아 8세기에 기록된 향가라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이제까지 해독하여 온 이 향가의 現代語譯을 종합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제1구: 무릎을 (바닥에) 절실한 마음으로 꿇으며
- 제2구: 두 손(바닥)을 꼭 모으고 모아 공손하게
- 제3구: 千手 觀音 前에
- 제4구: 간절히 빌고 빌어 사죄움을 두읍니다.
- 제5구: 천 개의 손에 있는 천 개의 눈을
- 제6구: 하나정도는(만은) 놓고, 하나는 꼭 떨어져서
- 제7구: 그 둘이 없는 나이니
- 제8구: 하나만은 꼭(틀림없이) 주시어야 하도다
- 제9구: 아아!
나에게 꼭 물리어 주실 바로 그것이언만……
- 제10구: 어디에 쓸 慈悲이라고 (관음보살님의 大慈大悲는) 크다 할 것입니까?

이 향가를 해독하면서 논의한 고대한국어의 언어적 사실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명사; 膝盼/무릎, 掌音/숭벼름, 手/손. 觀音. 前. 目/눈. 慈悲.
의존명사; 여실법: 等/ㄷ(只內乎叱+等+邪, 等+焉),
2. 대명사; 1인칭: ㅁ(良)/나(아), ㅁ(羅)/나(이라)
의문: 放(於)冬矣/어드의
3. 수사; 一等/하든(一等下叱, 一等沙隱), 二尸/두불, 千隱/즈믄
4. 조사; 속격: 叱/스(觀音叱 前)
대격: 盼/(으)ㄹ(膝盼, 目盼, 一等盼)
처격1: 良中/아귀(前良中)

- 처격2(여격): 良/아(我良)
 처격3; 矣/의(放冬矣)
 복합격: 良叱/앗(手良叱)
 보조사; 주제: 隱/(으)ㄴ(一等沙隱), 焉/(으)ㄴ(等焉)
 강제: 沙/사(一等沙隱)
5. 동사; 古召/긔(오). 毛乎/몬(오). 祈以/빌(오). 白+玉尸/웁(옴).
 置內(乎多)/두+아(오다) 放/놓 除+(惡支)/덜(아디)
 于萬/우마+(ㄴ) 賜以(古)/주시(고) 賜尸/주시(ㄷ)
 用(屋尸)/쓰(옴) 根(古)/그(ㄴ고)
6. 조동사; 여실법: 支/디(毛乎+支, 除惡+支, 遺知+支),
 합당법: 內/아(內+良, 置+內+乎多)
 품격: 只/기(只+內乎叱等邪)
7. 어미; 종결어미: 서술(평서): 邪/아(只內乎叱等+邪), 也/아(慈悲+也)
 서술(단정): 多/다(置內乎+多)
 의문: 古/(ㄴ)고(根+古)
 연결어미: 열거; 旃/며(古召旃)
 전제; 良/아(內良)
 이유; 羅/라(吾羅)
 동명사어미: 진리(미래): 尸/ㄷ(白屋尸, 賜尸, 用屋尸),
 기정: 隱/(으)ㄴ(于萬隱)
8. 보조어간; 의도법: 오(古召/긔+오), (毛乎/몬+오), (祈以/빌+오), (置內+乎+多)
 (只內+乎+叱等邪/기아+오+사+아), (用屋尸/쓰+오+ㄷ)
 확인법: 惡/아(除+惡+支), 內/아(只+內+乎叱等邪)
 확신법: 古/고(賜以+古)
 사역형: 이(遺知支/깁+이+디)
 정도: 下叱/(ㅎ)앗
 강제: 叱/사(只內乎+叱+等邪)
9. 감탄사; 阿邪也/아야야

<參考文獻>

- 姜吉云(2004), 『鄉歌新解讀研究』, 한국문화사.
- 姜信沆(1980), 『鷄林類事 高麗方言 研究』, 成均館大學校 出版部.
- 金俊榮(1964), 『鄉歌文學』, 螢雪出版社.
- 金完鎭(1980), 『鄉歌解讀法 研究』, 서울大學校 出版部.
- 南廣祐編著(1995), 『古今漢韓字典』, 仁荷大學校 出版部.
- 南廣祐編著(1997), 『古語辭典』, 敎學社.
- 남기심(2017), 「주제어 문장」, <韓國語研究> 13, 韓國語研究會.
- 南豊鉉(1981), 『借字表記法 研究』, 檀國大學校 出版部.
- _____ (2011), 「古代韓國語의 謙讓法 助動詞 ‘白/畚’과 ‘內/아’의 發達」, <口訣研究> 26, 口訣學會(『古代韓國語 論攷』(2014), 대학사에 再錄).
- _____ (2012), 「古代韓國語의 如實法 動詞 ‘支/디’와 ‘多支/다디’에 대하여」, <口訣研究> 29, 口訣學會(『古代韓國語 論攷』(2014), 대학사에 再錄).
- _____ (2013), 「東大寺 所藏 新羅華嚴經寫經의 釋讀口訣과 그 文法」, <口訣研究> 30, 口訣學會(『古代韓國語 論攷』(2014), 대학사에 再錄).
- 류 렬(2004), 『향가연구』, 도서출판 박이정.
- 徐在克(1975), 『新羅鄉歌의 語彙 研究』, 啓明大學 韓國學研究所.
- 梁柱東(1965), 『增訂 古歌研究』, 一潮閣.
- 俞昌均(1994), 『鄉歌批解』, 형설출판사.
- 이안구(2011), 「원가(怨歌) 해독안 검토」, 김성규편 『향가 해독 자료집』,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연구회.
- 정렬모(1965), 『향가연구』, 사회과학출판사.(1999, 한국문화사 영인)
- 池憲英(1947), 『鄉歌麗謠新釋』, 正音社.
- 홍기문(1956), 『향가해석』, 과학원.
- 弘法院(2005), 『佛敎大辭典』.
- 黃溟江(2001), 『향가문학의 이론과 해석』, 일지사.
- 小倉進平(1929), 『鄉歌及び吏讀の研究』, 京城帝國大學.
- 龜井孝·河野六郎·千野榮一編著(1996), 話し手の心理的距離, 『言語學大事典』

第6卷 術語篇.

이 논문은 2017년 11월 10일 접수되어 12월 10일까지 심사받아 12월 31일 발행

■ ABSTRACT

A New Readings of *Docheonsukwanumga* 禱千手觀音歌

Nam, Pung-hyun

Docheonsukwanumga is a hymn to the Thousand-Armed Bodhisattva. It describes the prayer of a mother named *Himyeong* and her blind child of five-years-old, to a wall painting of *Bunwhang-Sa*, a Buddhist temple. Through the prayer, they made wish to regain the child's sight.

This song shows a typical form of 10-line *Hyangga*. In terms of writing and grammar, it is presumed to be of the 8th century. The writing system of the song is intimately related to that of interpretative-reading *Gugyeol* and it's grammar reflects that of ancient Korean. Based on the writing system and the grammar of ancient Korean which are revealed through recently found materials of interpretative-reading *Gugyeol* and *Idu*, I tried to make a whole new reading of the song.

※ key-words: regaining the sight of a five-year-old child, a wall painting of *Bunwhang-Sa*, a typical form of *Hyangga*, writing system and grammar of ancient Korean